

### 도농 복합 선거구...선거구 조정 최대 관심

####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는 도농 복합 선거구의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타지역 이주 인구 비율이 높은 광양,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농촌 지역인 곡성·구례 민심을 읽는 게 관건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광양·곡성·구례에 순천 신대지구(해룡면·5만6000여명)가 합쳐졌지만 '자치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에 따라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지역을 추가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역 의원인 서동용 의원은 지난 4년간 확고한 지역 기반을 다지지 못한 '신인' 급 정치 경력이 재선에 영향력을 미칠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네 변호사 활동을 하며 맺은 폭 넓은 인맥을 갖춘 서 의원의 강점에도, 조직력 싸움을 하기에 지역구 관리를 느슨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과 맞서 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선 후보로는 권향엽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유근기 전 곡성군수,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 이종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 이종재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 전 비서관은 지난 총선 민주당



서동용 권향엽 유근기 유현주

경선에서 서 의원에 패하면서 본선에 나서지 못한 만큼 이번엔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재선 곡성군수를 지낸 유근기 전 곡성군수도 주목할만하다.

유 전 군수는 공식 출마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재선 현역 기초단체장이면서도 지난해 지방선거에 불출마해 향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광양 출신의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도 3선 도의원을 지내며 쌓은 의정경험, 인맥으로 지난 4년을 공들여온 점을 강조하며 총선 공천장을 받겠다는 각오다.

이종재 추진위원장은 전 광양시공무원 노조위원장, 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용재 이종재 추우용

등을 지낸 합리적 노동운동가임을 자임하며 민심을 훑고 있다.

민주당 이외 후보로는 유현주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이 출마 준비를 갖췄다. 국민의 힘에서는 추우용 당협위원장이 출마 입장을 밝혔다.

고향인 곡성과 지난 선거에서 뚜박이 유세를 펼쳤던 구례가 포함될 점 등을 감안하면 이정현 전 의원의 선택도 관심사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신정훈·손금주 리턴매치...지역 구도 변화 촉각

#### 나주·화순

나주·화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과 진보당 후보의 총선 출마도 예상되는 등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섰다, 손금주 전 의원의 리턴매치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여기에 구충곤 전 화순군수도 최근 화순지역에 사무실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주·화순 간의 지역 구도도 주목된다.

신 의원은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첫 입성한 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녹색돌풍'을 몰고 온 국민의힘 손금주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지만, 2020년 21대 총선에선 탄탄한 조직력에 힘 입어 다시 자리를 탈환했다. 신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 다자간 구도로 경선이 치러진다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받은 압도적 지지를 재현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구충곤 전 화순군수 출마도 주목된다. 민주당 출마 예상자 6명 중 4명이 나주에 기반을 둔 가운데 화순 출신은 구 전 군수가 유일하다.



신정훈 구충곤 김덕수 김중운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다크호스로 꼽히고 있다. 최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해 16명이 출마한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32%를 얻어 2등을 차지하는 등 상당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친 이재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을 맡으면서 이 대표의

단식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등 인지도를 쌓아오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과 나주시장에 출마해 인지도를 넓힌 김덕수 전 국무총리실 정부기획비서관은 밀박당 민심을 살피며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중운 나주·화순 당협위원장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출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나주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지방정치를 경험한 인물이다.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돼 지역에 예산폭탄을 내리겠다는 각오다.

전남도의회를 지낸 안주용 진보당 나주시 지역협의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원투표를 통해 22대 나주·화순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



최용선 손금주 안주용 최용선

### 이개호 4선 도전 유력...지역 최다선 기록 세울까

#### 담양·장성·함평·영광

담양·장성·함평·영광선거구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4선 도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남 지역의 다선 의원이 없는 국회 사정 탓에 주요 상임위원장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의 4선 입성 여부에 따라 광주·전남 현역 최다선 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역인 이개호 의원은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뒤 정치에 입문, 19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지낸 광주·전남 최다선 의원이자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노원 민주당 부대변인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박 부대변인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에 출마했지만 김한중 군수에게 석패한 바 있다. 박 부대변인은 2021년 9월 청와대 행정관에서 사퇴하고 2개월 뒤인 11월 지방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김영미 동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 관광 분야 전문성을 인정 받아 다양한 공직에서 활약하고, 오랜기간 표밭을 다져온데다 유일한 여



이개호 김선우 김영미 박노원

성 후보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선우 전 복지TV 사장도 재도전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 특별위원회 복지 전문위원 등을 지낸 복지과 환경 분야 전문가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와 최형식 전 담양군수도 출마예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전 군수는 함평군수를 3선 연임하며 나비축제를 전국 행사로 키워냈으며, 최 전 군수는 담양군수를 세 번 연달아 지내며

담양을 관광도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정부특별보좌관인 장현 전 호남대 교수도 출마를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영용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했다. 박 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전남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중앙당에 이름을 알렸고, 지역당협위원장을 맡아 선거구 관리를 위해 바빠 민심을 훑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영용 이석형 장현 최형식

### '김승남 3선 가도' 정치 신인들 공천 전쟁 예고

#### 고흥·보성·장흥·강진

현역인 김승남 의원의 3선 도전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젊은 정치 신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치열한 민주당 공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활동, 전남도당위원장 경력 등을 통해 다져놓은 탄탄한 조직 기반을 토대로 3선 고지를 향해 빠른 걸음을 내딛고 있다.

다만, 공천 티켓을 거머쥐는 게 순조로울 지는 미지수다. 우선, 3선에 대한 피로감, 지역 최대 현안인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의 순전 결정과 관련,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부정적 여론을 누그러뜨려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지역구 내 두 지역을 합한 수준의 인구(6만 1353명·8월말 기준)를 보유한 고흥의 경우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도 지정됐고,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으로도 선정된 상황에서 왜 애크기업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고흥이 아닌, 순천에 유치하게 했는 반발 심리도 일한다.

김 의원에 맞서 민주당 공천을 노리는 인물은 김수정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최



김승남 김수정 김화진 문금주

영호 전 광주남구청장,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이 오르내린다. 김 부의장은 보성 출신으로 4년 전 경선에 나선 바 있다. 농촌의 50%가 넘는 여성 인력, 빈곤 탈출 정책을 펼치겠다고 출사표를 냈다.

문 전 부지사는 29년 간의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전남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는 행정 전문가임을 내세워 공천 경쟁에 뛰어 들었다. 현직에 있을 때도 스텝 없는 소통 스킴십이 강점이며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지정 업무를 맡았던 경험으로 지역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영호 전 광주남구청장은 광주 남구의회 의원, 광주시의원, 구청장 등을 지냈고 한 전 상임 감사위원을 지냈다. 구청장 시절 8년간 민원 현장 방문만 3000여회에 달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이 강점으로 꼽힌다.

한 전 차장은 보성 출신으로 행정고시(31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과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낸 경제관료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순천대 석좌교수를 맡아 인지도를 높여 나서는 한편, 본격적인 지역 포섭 다짐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 힘에서는 고흥 출신인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본선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역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 반영토록 촉구하는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최영호 한명진

### 박지원, 고향서 첫 총선 출마...윤재갑 재선 도전

#### 해남·완도·진도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출마를 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지역으로 떠올랐다.

재선에 도전하는 윤재갑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결정된 뒤 지역 최대 현안인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희미한 존재감, 지난 4년 간 별로 두드러지지 않은 지역구 관리 등은 일각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흘러나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진도가 고향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박지원' 하면 누구나 아는 인지도가 재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앙 정치권에서의 존재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갖춘 조직력으로 윤 의원의 경쟁 구도를 갖췄다는 게 정권 분석이다. 여기에 김병구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 이영호 전 의원(17대 국회의원),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본부장, 장환석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정의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 특별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남 출신으로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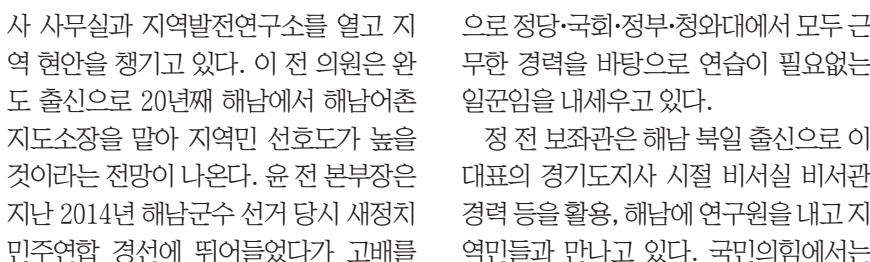


윤재갑 김병구 박지원 윤광국

등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해남에 변천사 사무실과 지역발전연구소 등을 열고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완도 출신으로 20년째 해남에서 해남어촌 지도소장을 맡아 지역인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해남군수 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신 이후에도 꾸준히 경선 경쟁에 나서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

장 전 선임 행정관은 해남 문내면 출신으로 정당·국회·정부·청와대에서 모두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연승이 필요없는 일꾼임을 내세우고 있다.

정 전 보좌관은 해남 복일 출신으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관 비서관 경력 등을 활용, 해남에 연구원을 내고 지역민들과 만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웅 당협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이영호 장환석 정의안 조웅

### 서삼석 대항마 누구?...영암 표심 향배 주목

#### 영암·무안·신안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3선을 노리는 서삼석 의원 아성에 누가 도전장을 내느냐가 관심 거리다.

서 의원은 민선 3·4·5기 무안군수와 재선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20차례가 넘는 짧팍팍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낼 정도로 지역 현안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해결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전남도당위원장 등을 지내며 다져놓은 조직력이다. 농촌 지역 현안까지 꿰뚫고 있다보니 하루 한 곳 돌러보기도 힘든 섬 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구에도 지난 총선 때 높은 득표율(76.96%)을 얻는 등 긍정적 평가도 입소문나고 있다.

여기에 지난 6월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역 현안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 점은 향후 총선 경선 과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쳐진다. 오랜 기간 지역 기반을 쌓아온 현역 국회의원이 버티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로는 경쟁 구도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전남 최대 현안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 군 공항과 함께 국내선 민간 공항의 조속한 이점을 요구하고 있는 전남도와 달리, 무안 민



서삼석 김병도 백재욱 황두남

심만을 내세워 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중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전남 서남권 발전 방안에 대한 시각 차를 놓고 후보들 간 경쟁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과 맞설 인물은 김병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무안 출신인 김 부의장은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미래기획단 부실장을 맡는가 하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이 강조하면서 '천명' 후보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역 민원을 해결할 새인물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백 전 행정관은 신안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내고 두 차례 총선에 도전한 바 있다. 백 전 행

정관은 지역구 행사장을 비롯, 주민들과의 스킴십을 넓히는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20대 총선부터 무안과 신안에 영암이 포함됐지만 총선에 나설 영암 출신 후보가 보이지 않는 점은 향후 민주당 경선에서 눈여겨볼만하다. 국민의힘에서는 황두남 영암무안신안 당협위원장이 출마 입장을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